

## 이소라·홍진경, 파리쇼 서나...에이전시 3곳서 러브콜

등록 2026.05.04 09:06:18



[서울=뉴시스] '소라와 진경' (사진=MBC 제공) 2026.05.04. photo@newsis.com \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남정현 기자 = 이소라와 홍진경이 파리 에이전시 3곳에서 응답을 받았다.

3일 방송된 MBC '소라와 진경' 2회에서는 이소라와 홍진경이 조연을 구하기 위해 한혜진을 만났다.

한혜진은 "사람이 살짝 미칠 때가 있다. 등 따습고 배부를 때 그렇다"며 "언니는 파리에서 먹히는 얼굴"이라고 말했다.

한혜진은 2006년 뉴욕 패션위크 데뷔를 시작으로 한국인 모델 최초로 2008년 구찌 쇼에 섰으며, 같은 해 타미 힐피거 쇼에 선 최초의 아시안 모델이 되기도 했다.

이후 파리 에이전시 3곳에서 연락이 전해졌고, 이소라와 홍진경은 감격에 젖었다.

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기쁨을 만끽한 것도 잠시 영상 미팅에서 영어 면접을 통과해야만 정식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다음 단계에 맞닥뜨렸다.

두 사람은 조력자들을 초빙해 '영어 과외'에 돌입했다. 홍진경은 영어에 능통한 딸 라엘과 함께 면접 답변을 만들어갔다.

이소라는 언어 천재 성시경과 '명예 영국인' 백진경을 만나 실전 회화 팁을 전수받았다.

성시경은 "누나가 모델 중에 제일 예쁘다"며 이소라를 추켜세웠고, 백진경은 "영어는 기세"라며 "언니가 이룬 게 많으니 당당하게 말해라"고 강조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nam\_jh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